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의 1년

경북대학교

홍수민

경북대학교에서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으로 교환유학을 오게 된 홍수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일본에서 교환유학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난 학기와 비교해서 이번 학기는 유학생 수업보다는 일본인 학생과 함께 듣는 수업 위주로 수강했습니다. 그만큼 저의 일본어 실력이 향상된 것을 스스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일본사정연습5A입니다. 일본사정연습5A는 개인의 아이덴티티나 역사인식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 일본의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학생과 한국의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이 온라인 ZOOM을 통해 대화나 발표를 하며 의견 공유를 하는 한일합동수업입니다. 저는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소속이지만 한국 측으로 참여했습니다. 수업을 통해 지금까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한일 서로는 어떤 국가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한일 관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래의 한일 관계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본인 학생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인 친구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은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존중하며 솔직하게 의견 공유를 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스포츠과학개론 수업에서는 새롭게 생긴 스포츠, 올림픽과 패럴림픽, 운동과 영양 밸런스 등 스포츠와 관련된 주제를 폭넓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청 강연으로 2020 도쿄올림픽 펜싱 에페 남자 단체 일본 금메달리스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만나고 금메달을 실제로 만져 볼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경험해 보고 싶어서 도토루라는 일본 체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에는 카페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일본어로接客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점장님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어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대부분 대학생이라 또래 친구를 사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학기는 반년밖에 남지 않은 일본에서의 생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일본을 즐겼습니다. 겨울방학에는 홋카이도, 오사카, 나라, 교토를 다녀왔고 골든위크에는 후쿠오카, 구마모토에 놀러 갔습니다. 올해 새롭게 생긴 지브리 파크에 가기 위해 나고야에도 놀러 갔습니다. 도쿄 근교인 가와고에도 다녀왔습니다. 여름방학에는 네부타 마츠리를 보기 위해 아오모리에 갑니다. 일본에 살면서 여러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쿄 내에서도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계절에 맞춰 열리는 축제들이 즐거웠습니다. 개화시기에 따라 다른 꽃을 보러 벚꽃축제, 진달래축제, 수국축제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꽃들이 만개하여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스미다강 불꽃축제도 보러 갔습니다. 운이 좋게 불꽃놀이를 가까운 자리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모든 불꽃놀이가 화려하고 예뻐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새롭게 온 교환학생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숙사의 키친 룸에서 타코야끼 파티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친구가 하고 있는 합창단 공연을 보러 가거나 도쿄타워를 보러 가거나 함께 놀러 다녔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환유학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지도교관이 되어 주신 모리야마 선생님, 이번 학기에 모리야마 선생님의 일본사정연습5A를 수강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교환학생을 담당하여 여러 도움을 주신 하기와라 선생님, 좋은 수업을 해 주신 오우 선생님, 카토 선생님, 야마구치 선생님, 하시모토 선생님, 난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수속을 해주신 국제과 선생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신 기숙사 관리인분들도 감사합니다.

